

2018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답시험

국 어

< 2017. 7. 15(토) 10:00~11:30 >

감독위원 확 인	
-------------	--

모집단위		전형유형	재외국민
수험번호		성 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답안은 별도로 주어진 OCR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나. 답안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시험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다. 답안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라. 답안 수정시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을 수정한 경우, 문항번호에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 마. 답안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해 5월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고속도로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모델S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다. 테슬라가 밝힌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모델S가 트레일러의 하얀색 측면과 밝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1월 테슬라의 사고에 대한 조사에서 모델S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모델S에 대한 리콜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델S가 트레일러의 하얀색 측면과 밝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작동한 문제는 차량의 결함이라기보다는 기술적 한계라는 것이다. NHTSA는 오히려 사망한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가 최소한 충돌 7초 전에는 차량의 신호로 트레일러를 볼 수 있었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구글이 시험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가 교차로에서 버스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이전에도 몇 차례 접촉 사고를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책임을 구글이 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고들과는 달랐다. 버스 운전자들은 일반 운전자들과 달리 통상 우회전 차량에 잘 양보하지 않는데, 이점을 우회전 하던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운전 성향까지 고려해 미리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고는 모두 자율주행과 관련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고 책임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테슬라 모델S의 경우 인간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반면, 구글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과실로 인정됐다.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 중 하나는 두 차량에 적용된 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자율주행기술 수준을 설명할 때 NHTSA의 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NHTSA는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 레벨 4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 0은 숫자 그대로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제 자율주행기술 수준은 기술 적용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레벨 1에서는 운전자가 충돌 임박 상황에서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해야 한다. 레벨 2에서는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자동차가 복수의 주행 및 안전 기능을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여전히 모니터링 및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해야 한다. 레벨 3에서는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주행 및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되,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한 경우 정보 신호를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가 간헐적으로 자동차를 제어해야 한다. 레벨 4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므로 운전자는 목적지 혹은 운행을 입력한 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테슬라 모델S의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며, 차량의 기계적 오작동은 없었다.
- ② 테슬라 모델S의 기계적 오작동은 없었기 때문에 NHTSA는 모델S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 ③ 테슬라 모델S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구글이 시험 중이던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

- ④ 구글이 시험 중이던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기계적 오작동에서 비롯되었다.
- ⑤ 구글이 시험 중이던 자율주행차에 기계적 오작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NHTSA는 구글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2. 밑글에서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S의 자율주행기술은 NHTSA가 제시한 분류 기준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 ① 레벨 0
- ② 레벨 1
- ③ 레벨 2
- ④ 레벨 3
- ⑤ 레벨 4

3. NHTSA가 제시한 레벨 4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 설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교통 신호 체계 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② 교통 신호를 위반해야 할 경우 ‘수동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③ 탑승자의 안전과 보호보다 교통 신호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④ 상황에 따라 교통 신호의 준수 여부를 차량 스스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⑤ 상황에 따라 교통 신호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간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효율성에 따라 내리도록 설계해야 한다.

[문제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쥐를 T자형 미로의 바닥 부분에 놓고 통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교차로에 도착한 쥐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향한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오른쪽과 왼쪽 중 한 곳에만 먹이를 놓아두고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쥐에게 먹이가 있는 쪽을 찾도록 학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통로에 먹이를 두고 교차로에서 오른쪽 길을 선택하면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킨다고 해 보자. 이때 쥐가 학습한 내용은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교차로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학습 방법은 ‘반응 학습’이라고 불린다. 반응 학습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의 운동을 터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쥐는 교차로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T자 미로의 특정 위치에 먹이를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그 방향으로 도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미로의 특정 위치에 화분이 놓여 있어 이정표로 삼을 수 있다면, 쥐는 “화분 근처에 먹이가 있다.”라고 학습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소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장소 학습을 하려면 실험이 진행되는 장소와 자신의 현재 위치와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쥐가 T자 미로에서 오른쪽을 선택한 것은 반응 학습의 결과일까, 장소 학습의 결과일까? T자 미로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해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두 가지 학습이 이끄는 행동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다. 쥐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내려면 학습한 쥐를 새로운 조건에 노출시켜보아야 한다. 가령 T자 미로의 오른쪽에 먹을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학습한 쥐를 대상으로 미로 전체를 180도 돌려놓은 후 검사를 해본다. 이제 화분은 쥐가 볼 때 왼편에 놓여 있다. 만일 쥐가 ☐ ㄱ 을 했다면 화분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쥐가 ☐ ㄴ 을 했다면 화분이 있는 방향인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미로의 위치를 원래 먹이가 없었던 왼쪽 통로 끝이 먹이가 있었던 장소와 일치하도록 바꾸고 나서 쥐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전의 학습 과정에서 ☐ ㄷ 을 했던 쥐는 왼쪽으로 돌 것이다. ☐ ㄹ 을 했던 쥐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과연 이런 변형 실험들로 쥐가 무엇을 학습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와 같은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어떤 실험에서는 쥐가 반응 학습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실험에서는 장소 학습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상반된 실험 결과는 동물의 학습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일반화를 시사한다.

4. ☐ ㄱ ~ ☐ ㄹ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모두 고르면?
- ① ㄱ: 반응 학습 - ㄴ: 장소 학습 - ㄷ: 반응 학습 - ㄹ: 장소 학습
 ② ㄱ: 반응 학습 - ㄴ: 장소 학습 - ㄷ: 장소 학습 - ㄹ: 반응 학습
 ③ ㄱ: 장소 학습 - ㄴ: 반응 학습 - ㄷ: 장소 학습 - ㄹ: 반응 학습
 ④ ㄱ: 장소 학습 - ㄴ: 반응 학습 - ㄷ: 반응 학습 - ㄹ: 장소 학습
 ⑤ ㄱ: 반응 학습 - ㄴ: 반응 학습 - ㄷ: 장소 학습 - ㄹ: 장소 학습
5. ‘반응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길을 안내한 것은?
- ① 저기 하얀 간판의 식당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식당 건물 2층입니다.
 ② 바로 앞에 보이는 우체국 아래 붉은 벽돌 건물이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③ 이쪽으로 계속 가시다가 막다른 곳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것입니다.
 ④ 100m 정도 더 가시다 보면 신호등이 보일 것입니다. 신호등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⑤ 여기서 유턴하세요! 그러면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옵니다. 진입로 옆의 샛길로 나가서 쪽 가세요.

6. <보기>를 읽고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동물들은 특정 과제에 맞추어 하나의 특정한 학습 방법을 습득한다.
 ㄴ. 동물들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ㄷ. 동물들은 특정 상황에 맞추어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한다.
 ㄹ. 동물들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 방법을 선호한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라고 보는 은유가 존재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까닭은 우리가 보통 국가와 같은 거대한 사회 집단을 가정이나 공동체와 같은 작은 집단을 통해 이해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가정에 연결하는 은유가 존재하고, 우리가 현재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면, 가정을 이해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여러 입장과 진보주의의 여러 입장을 모으고 이것들을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에 집어넣은 후 여기서 가정에 대한 두 가지 모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먼저 ‘엄격한 아버지’ 가정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전체를 깔고 시작한다. ‘세상은 본래 험한 곳이고, 앞으로도 험할 것이다. 또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다. 어디에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며,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다. 어린이들은 나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선한 사람으로 빚어내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고 엄격한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벌을, 그것도 고통스런 벌을 주는 것이다. 이로써 아이들은 잘못된 일을 멀리하는 내면적 절제력이 발달하여 다음에는 더욱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내면적 절제력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기회의 땅에서는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장차 자립하게 되고 부유해질 수 있다.

다른 한 모형은 진보주의자의 모형으로 ‘자상한 부모’ 가정의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동등한 책임을 진다. 모든 어린이는 본성이 선하며 더욱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모형의 전제이다. 그리고 세상 또한 더 나은 곳으로 바뀔 수 있으며, 또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자상하게 보살피고 그 자녀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다. 여기서 자상한 보살핌이란 첫째 감정 이입, 둘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 셋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국가, 세계를 위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보주의의 다른 모든 가치는 이 세 가치에서 저절로 딸려 나온다.

7. 윗글에 따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와 가정은 실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② 타인과 나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두 모델에서 유사하다.
- ③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아버지의 역할은 두 모델에서 유사하다.
- ④ 자상한 부모 가정 모형은 여성의 인권 신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는다.
- 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델은 자기 이익의 추구를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녀와 유대를 맺고 감정 이입 하려면 정직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열린 쌍방향의 의사소통은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② 정말로 아이를 배려한다면, 부모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은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③ 사람은 공동체 안에 살며 공동체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봉사는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④ 사람은 풍부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부유해질 수 있다. 기회와 물질적 번영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책임은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⑤ 자상한 부모라면 아이가 충만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충만한 삶을 구하고 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자유는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9. 윗글이 함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주의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② 진보주의는 세상을 낙관적 관점에서 본다.
- ③ 은유를 통한 이해는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 ④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도덕적 관점의 차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 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공통의 관심사가 가정이므로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양자가 화해할 수 있다.

[문제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경제학계는 ㉠고전주의 경제학파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신고전주의 학파는 고전주의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도 ‘신(新)’을 붙여 구분해야 할 만큼 고전주의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고전주의 학파는 재화의 가치가 오로지 공급 조건, 즉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반면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화의 가치 결정에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수요 조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잠재적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제품의 가치가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전

주의 학파는 뚜렷이 다른 계급들이 모여 경제를 구성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신고전주의 학파는 경제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개인을 ‘기쁨을 추구하는 기계’라고 부르며, 아주 협소한 물질적 의미에서 최대의 효용과 최소의 비효율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 학파는 고전주의 학파의 중심적 생각 두 가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하나는 경제 주체들이 이기적 동기에서 움직이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전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최상이라고 신고전주의 학파는 결론짓는다. 이러한 결론은 20세기 초 사회의 개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안된 ‘파레토 기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빌프레도 파레토는 독립 의지를 가진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의 상황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일부 사람의 상황이 더 나아져야만 그 사회적 변화를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전주의 학파는 한편으로는 이 기준을 사회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변화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레토 기준에 따를 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10. ㉠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급 조건보다 수요 조건이 더 중요하다.
- ② 경제 활동의 주체는 합리적이고 이기적 동기에 의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다.
- ③ 경제 체제의 중심인 시장은 독립 의지를 가진 소비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해 운영된다.
- ④ 공급 조건의 변화를 통해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인간 사회는 더욱 풍요롭게 발전된다.
- ⑤ 공급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장기간에는 공급 조건이 중요할 수 있지만, 공급 조건을 바꿀 수 없는 단기간에는 수요 조건이 더 중요하다.

11. 윗글에 따를 때, ㉡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이다.
- ② 소수보다 다수가 우선이다.
- ③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하다.
- ④ 시장에 대해 자유방임주의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 ⑤ 부작용보다 효용이 더 큰 경제 정책은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12. ㉔을 활용하여 ㉓을 비판할 때 적절한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누군가의 상황을 나빠지게 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의 상황도 좋아질 수 없으면 그 사회는 파레토 최적 상태임을 보여준다.
- ㄴ. ㉔을 인정할 경우 파레토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어 이를 차용한 ㉓의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밝힌다.
- ㄷ. ㉔이 거짓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므로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에 정부 보조금을 지불하면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문제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페라는 노래 중심의 극으로, 모든 대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종합 무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오페라 중에도 신화나 영웅의 전설에서 제재를 구한 서정적 비극을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고, 이와 달리 현실적 제재에 희극적 내용을 가진 것을 ‘오페라 부파’라고 한다. 오페라 부파는 원래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극*이었는데, 이 막간극이 18세기에 큰 인기를 얻어 발전하면서 오페라 세리아와 함께 오페라를 대표하는 양식 중 하나가 되었다.

오페라 부파가 18세기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8세기 유럽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당시 유럽 사회의 모든 분야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계몽주의자들은 절대 왕정 군주 체제와 귀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였으며, 교육과 음악을 평민층까지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평민들도 오페라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페라 부파는 평민들과 밀착된 소재, 즉 현실적 삶을 소재로 웃음을 주거나 당대의 현실이나 지배층을 풍자·조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얼마 ㉑지나지 않아 평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18세기에 큰 인기를 얻었던 오페라 부파는 인물의 설정과 음악을 통해서 풍자·조롱의 희극성을 높였다. 인물 설정 방식은 주인공과 하인의 관계 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하인이나 여성의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물 설정 방식은 지배층의 우둔함이나 우유부단, 위선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 계층의 문제 등을 풍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음악의 측면에서는 부점**이나 스타카토***, 음의 빠르기, 기존의 곡에 있는 선율이나 곡 자체의 패러디 등을 활용했다. 예를 들면 지배층이나 남성의 우월함이 드러나는 가사나 상황에서 부점이나 스타카토를 사용한 가벼운 느낌의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음을 빠르게 진행하여 귀족의 행동이 우아함이 아니라 경박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 풍자나 조롱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귀족을 비판하는 가사를 위엄이나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존의 곡에 붙여 나타내는 것은 패러디의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당대의 현실을 풍자·조롱했다는 점에서 18세기 오페라 부파는 인간 사회나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었으며, 동시에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㉒ 답론의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서민들의 현실적 삶이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소재로 삼고, 여기에 풍자·조롱의 표현과 기능이 결합되면서 오페라 부파는 18세기 말에 이르러 오페라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다.

* 막간극: 연극의 막 사이 또는 전후에 진행되는 짧은 연극

** 부점: 음표나 쉼표의 오른쪽에 찍어서 원래 길이의 반만큼의 길이를 더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점

*** 스타카토: 악보에서 한 음 한 음씩 뚜렷하게 끊는 듯이 연주하라는 말

13. 뒷글에 따를 때, ‘오페라 부파’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귀족은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인물로, 하인은 우월한 인물로 설정한다.
- ㄴ. 귀족의 고귀함과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는 음악에 귀족의 위선과 속임수를 드러내는 가사를 얹힌다.
- ㄷ. 귀족과 하인으로 서로 신분이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는 주인공 남녀가 오해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 ㄹ. 귀족이 분노하는 노래 장면에서 느리고 장엄하게 시작하여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빠른 박자로 변화하여 귀족의 분노하는 모습이 경박스럽게 느껴지게 만든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4. ㉒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 ① 적응
- ② 지배
- ③ 대안
- ④ 저항
- ⑤ 위로

15. 밑줄 친 부분이 ㉑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나는 여행 온 지 보름이 지났다.
- ② 화가 나도 상식에 지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 ③ 통학 버스는 항상 은행을 지나서 학교로 간다.
- ④ 버스가 제한 속도를 지나서 과속으로 달렸다.
- ⑤ 나는 친구의 충고를 무심결에 그냥 지나 버렸다.

[문제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nature)”은 애매한 용어이며,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사고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연의 의미 중 하나에 따르면, 자연은 단지 인공적인 것에서 동떨어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를 자연₁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다른 의미의 자연, 즉 자연₂와 대조된다. 후자는 진화하는 시공간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자연₂에 속하는 어떤 것들, 이를 태면 집, 보트, 폭탄 등은 자연₁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히 인간의 기술적 성과들은 자연₁의 부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기술은 시공간의 우주에 속하므로 자연₂의 부분이다. 기술이 자연₂의 일부인데 어떻게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겠는가? 기술은 자연₁스럽지 않지만 자연₂스럽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용어에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어떤 것의 자연성 즉 그것의 본성을 의미한다. 이를 자연₃이라고 해보자. 이때 본성이란, 다른 사정이 똑같은 경우 외적 간섭 없이 그 자체가 속한 종류에 맞게 발전할 때 표출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도토리의 자연₃은 참나무로 자라는 것이다. 추상적 기호를 조작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고안하는 인간 종은 다른 생물 종들에 비해 매우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 지성의 구현인 기술은 인간의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에서 자연스럽다. 즉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ㄱ에서 비롯되었고, ㄴ 안에서 진화한다. 이처럼 인간의 기술이란 시공간적 우주 속에 존재하면서 인간 종이 지닌 본성의 탁월한 측면인 지성의 산물이므로, 오직 ㄷ과 대조될 경우에만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뿐이다.

“자연”이나 “자연스러운”이라는 말들이 단순히 서술적 효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구별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이 말들은 축복과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모욕적인 것이며,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척 받는다. 아마도 “자연”이나 “자연스러운”에 따라다니는 정서적 함축은 자연₃의 규범적 분위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의 본성이 최적화되어 발전된 상태란 간섭받지 않고 발전되도록 허용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완전한 사과와 사과나무의 자연₃이 가뭄, 해충, 벌레와 같은 방해 없이 스스로 잘 작동함으로써 산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₃을 “좋은” 것이라고 느낀다. 물론 이 대목에서 해충과 벌레가 바쁘게 자신의 자연₃에 따라 일했다는 사실이나, 사과나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날씨 역시 자연₁과 자연₂의 일부라는 사실은 무시되었다. “자연”이라는 용어가 어떤 연유로 이처럼 강한 긍정의 정서적 함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에서 모두 살피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다만, 자연₁의 의미에서 인간이 부자연스럽게 기술적 개입이나 변경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며, 인간 자연₃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나 변경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 ㄱ ~ ㄷ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모두 고르면?

- ① ㄱ: 자연1, ㄴ: 자연2, ㄷ: 자연3
- ② ㄱ: 자연2, ㄴ: 자연1, ㄷ: 자연3
- ③ ㄱ: 자연2, ㄴ: 자연3, ㄷ: 자연1
- ④ ㄱ: 자연3, ㄴ: 자연1, ㄷ: 자연2
- ⑤ ㄱ: 자연3, ㄴ: 자연2, ㄷ: 자연1

17. ‘자연₃’을 사용한 주장은?

- ① 요즈음 도시의 많은 학생들이 자연 학습과 심신 단련을 위해 국립 자연 공원으로 여행을 다녀온다.
- ②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여러 환경보호단체들이 지닌 공통적 입장이다.
- ③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성숙한 성인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연애 방식이나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우리가 경험하는 야생은 인간의 개입을 통해 보전된 인공적 자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환경보존주의자들에 대한 환경관리론자들의 반박이다.
- ⑤ 현대의 유물론자들은 심령 현상이나 텔레파시처럼 기존의 자연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8. 밑글에서 ‘자연’의 여러 의미를 구분했듯이 <보기>에서 ‘동물’의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이 동물 같은 놈아!
 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ㄷ.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ㄹ. 수면과 배설은 동물적 행동이다.
 ㅁ. 인간의 동물적 행동은 규제해야 한다.

- ① ㄱ, ㄹ / ㄴ, ㄷ, ㅁ
- ② ㄱ, ㄴ, ㄹ / ㄷ, ㅁ
- ③ ㄱ, ㄷ, ㄹ / ㄴ, ㅁ
- ④ ㄱ, ㄹ / ㄴ, ㄷ, ㅁ
- ⑤ ㄱ / ㄴ, ㄹ / ㄷ, ㅁ

[문제19~20] 다음은 작문과제와 그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과제] 친구의 장점을 찾아 그에 비추어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된 점을 글로 써보자.

[학생글]

내 친구 영희는 말을 잘하기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우리들 사이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영희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된다. 영희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해지고, 갈등의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나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내 생각을 남에게 분명하게 ㉣전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딱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속이 상했다. ㉤나를 속상하게 하

는 것을 한 가지 더 들자면 나는 참음성이 부족해 계획을 세우고는 쉽게 포기한다는 점이다. 이런 나로서는 영희의 말솜씨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영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만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의식하지 않고 들을 때는 몰랐는데, 영희의 말하기는 아주 특별한 데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영희가 말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영희는 상대방의 말을 정말 귀담아 잘 듣는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적절히 던진다. 이런 방법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게 되니 남들보다 더 정확한 판단에 의한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도 더 잘 제시할 수 있는 것 같다. 영희의 말이 무게를 지니고 많은 친구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비결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나는 말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그저 말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자체의 논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나는 내 생각을 잘 드러내려는 욕심에 앞서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진정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 [학생글]의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이다.
- ② 말과 행동은 쌍둥이 형제와 같다.
- ③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 ④ 빛나는 말솜씨는 경청으로 깎은 보석이다.
- ⑤ 격렬한 논쟁의 종착역은 최고의 합의이다.

20. [학생글]에 대한 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맞춤법에 어긋나니까 ‘바람’으로 고쳐야 한다.
- ② ㉡은 문맥상 적절한 단어이니 수정할 필요가 없다.
- ③ ㉢의 앞뒤는 중심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 문단을 나눈 것은 잘못되었다.
- ④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니 ‘전달하려고’로 고쳐야 한다.
- ⑤ ㉤은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다.